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REPORT

■ 내수 산업, '불황 속의 불황' 에 대비해야 한다

- 2012년 하반기 산업 경제의 특징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장후석,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3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3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내수 산업, ‘불황 속의 불황’에 대비해야 한다

- 2012년 하반기 산업 경제의 특징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2012년 하반기 산업 경제의 특징 5

3. 시사점 12

【부록】 산업별 최근 경기 동향과 하반기 전망 15

① 조선업 16

② 기계산업 19

③ 자동차산업 22

④ 철강산업 25

⑤ 석유화학산업 28

⑥ 해운업 31

⑦ IT제조업 34

⑧ 건설업 37

■ HRI 경제 지표 40

< 내수 산업, '불황 속의 불황'에 대비해야 한다 - 2012년 하반기 산업 경제의 특징 >

2012년 하반기 산업 경제의 모습

- ⊗ 하반기 전반적인 산업 경기 부진이 예상되나, 그 중 개도국 시장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 ⊗ 반면, 서비스업 등의 내수 관련 산업은 경기 침체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산업 - 불황 속의 불황)

2012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예상

- ⊗ (경기 하강) 세계경제 부진으로 기계, 철강, 자동차, 유화 등의 성장세 약화
- ⊗ (업황 침체) 조선의 불황 장기화 속, IT도 수요 부진으로 침체 국면 진입
- ⊗ (회복 모색) 기술적 반등 및 미약한 수요증가로 건설/해운의 회복 모색

2012년 하반기 산업 경제의 특징

- ⊗ (경기) 주요 산업의 경기 하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 (수출) 기초 원부자재 산업 경기는 상대적 선전이 기대된다.
- ⊗ (내수) 수출시장도 부진하나 내수는 더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
- ⊗ (산업) IT/조선의 성장주도력 약화 속 유화/자동차의 부상이 예상된다.
- ⊗ (기업)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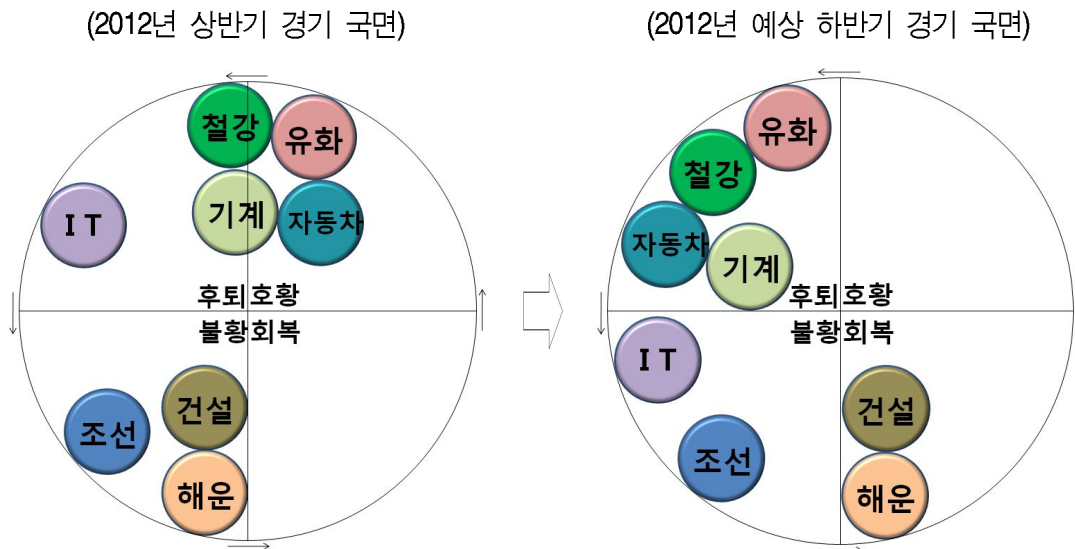
시 사 점

첫째, 하반기 경기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고려
 둘째, 선진국 시장 수요 부진 보완을 위한 신흥 시장 수출 확대 노력
 셋째, FTA 활용 극대화를 통한 선진국 수출 시장 경기 급락 방지
 넷째, 내수 침체에 대응한 소비재/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
 다섯째, 상대적으로 침체 정도가 심한 중소기업 부문 위기 완화에 주력

■ 2012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경기 하강 산업 - 기계/철강/자동차/석유화학) 2012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을 판단해 보면, 우선 세계 경제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기계,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산업은 호황 국면을 마치고 경기 하강 국면으로의 진입이 전망된다. (업황 침체 산업 - 조선/IT) 조선업이 수주 침체로 불황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IT산업은 업종 경기를 선도하는 선진국 경제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회복 모색 산업 - 건설/해운) 개도국 중심의 수출 경기 유지 등으로 해운업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이며, 건설업도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미약하나마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변화 >



■ 2012년 하반기 산업 경제의 주요 특징

(경기 - 경기 하강세 지속) 2012년 하반기 국내 산업 경기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전반적 산업 경기가 하강을 지속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 건설업의 생산 증감률이 2011년 3/4분기 이후 최근까지 가파른 하락세를 지속중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경기 상황이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재고증감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출하증감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 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유럽 재정위기 등 하반기 대외 여건이 빠르게 안정화된다면 전반적인 산업 경기가 회복 조짐을 나타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수출 시장 - 기초 원부자재 산업 경기의 상대적 선진) 둘째,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초 원부자재 산업 경기는 상대적으로 선진이 기대된다. 하반기에는 선진국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도국 경제의 경기 하방 경직성이 전망된다. 특히 개도국 경기를 선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화학, 기계, 철강 등의 산업에서 침체 정도가 예상 밖으로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내수 시장 - 수출보다 내수의 침체 심화) 셋째, 수출 시장도 부진할 것이나 내수 시장의 침체 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내수와 외수가 모두 부진할 것이나 수출 부문의 경우 중국 등 신흥국 경기의 하방 경직성으로 상대적 선진이 전망된다. 반면 내수 부문은 소비 및 투자 심리 부진, 실질 구매력의 취약 등으로 내구소비재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비중 - 성장 주도 산업들 간 위상 변화) 넷째, 유화/자동차 산업의 성장 주동력이 높아지는 반면 IT/조선 부문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화, 자동차 수출 비중은 2009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2012년 1~4월 기준 유화는 총수출의 18.4%, 자동차는 13.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IT 수출 비중은 2009년 26.2%에서 2012년 1~4월에 18.8%로 빠르게 낮아지고 있으며, 선박 수출 비중도 같은 기간 12.4%에서 9.4%로 하락하는 모습이다. 하반기에도 IT 및 조선 두 산업의 수요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이러한 부진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상대적 경기 부진) 다섯째,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율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 생산이 먼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재고-출하 사이클로 예측을 해 볼 경우 향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경기가 부진할 것이지만 중소기업의 경기 하강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후 상대적으로 수출에 비해 내수 부진세가 더 클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 내에서도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점

향후 대내외 여건 개선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 산업 경제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산업 경기 연착륙을 적극 도모해야 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산업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선진국 시장의 수요 침체를 신흥 개도국에 대한 수출로 보완할 수 있는 수출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FTA 활용 극대화를 통해 선진국에 대한 수출 경기 급락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내수 침체에 대응하여 소비재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상대적으로 침체가 심한 중소기업의 위기를 완화시켜야 한다.

1. 개 요

○ 최근 국내 경기 동향

- (경제성장률)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2012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8%까지 하락
- (소비) 정부소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침체를 지속함에 따라 총소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2% 증가
- (투자)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건설투자는 기술적 반등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
 - (설비투자) 반도체 등의 일시적 투자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함
 - (건설투자) 토목 부문이 침체되었으나 건축 부문의 반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율을 기록함
- (수출)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자동차, 철강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4.7% 증가
 - 수입은 기계, 석유제품 등의 수입이 늘면서 전년동기대비 4.4%의 증가율을 기록함

< 분기별 국민계정 주요 지표 추이 >

(단위: 전년동기대비, %)

| | 연간 | 2011 | | | | 2012 |
|----------|------|-------|------|------|------|------|
| | | 1/4 | 2/4 | 3/4 | 4/4 | 1/4 |
| 경제성장률 | 3.6 | 4.2 | 3.5 | 3.6 | 3.3 | 2.8 |
| 총소비 증가율 | 2.2 | 2.6 | 2.7 | 2.3 | 1.3 | 2.2 |
| 민간소비 증가율 | 2.3 | 2.9 | 3.0 | 2.1 | 1.1 | 1.6 |
| 정부소비 증가율 | 2.1 | 1.4 | 1.8 | 3.3 | 1.8 | 4.7 |
| 총투자 증가율 | 1.5 | -1.9 | 3.3 | 0.4 | 3.7 | 4.0 |
| 건설투자 증가율 | -5.0 | -11.0 | -4.2 | -4.0 | -2.1 | 1.5 |
| 설비투자 증가율 | 3.7 | 10.3 | 7.7 | 1.2 | -3.3 | 8.6 |
| 수출 증가율 | 9.5 | 17.0 | 8.5 | 9.6 | 4.4 | 4.7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2012년 1/4분기 국민소득」 6월 7일자 보도자료 기준).

○ 2012년 대외 경제 여건

- 유럽 재정위기 확산 : 그리스의 정치 불안, 스페인의 금융위기 심화,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가능성 등 유로존 경제의 위기 상황이 확산되고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유럽 경제의 성장률은 2011년 1.4%에서 2012년 -0.3%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
- 미국 경기 회복세 미약 : 주택시장 부진 지속, 소비 회복 미약, 재정여력 미흡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
 - 2012년 1/4분기 성장률이 1.9%로 둔화되고 실업률은 5월에 8.2%로 재상승
- 중국 성장세 둔화 : 수출과 소매판매 증가세 약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
 - 2012년 1/4분기 성장률이 8.1%로 2010년 4/4분기 9.8% 이후 5분기 연속 하락세가 지속
- 세계 경기 부진 심화 : 유럽 재정위기 악화, 미국의 경기 회복세 미약,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
 - 세계 경제는 2011년 3.9%에서 2012년 2~3%대 초반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유럽 재정위기가 계속 확산되어 나갈 경우 세계 경제의 부진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큼

<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

(%)

| 국가 | 2010 | 2011 | 2012(E) | | |
|-----|------|------|-------------------|--------------------|--------------------------|
| | | | IMF (2012년 4월) | OECD (2012년 5월) | World Bank (2012년 6월) |
| 세계 | 5.3 | 3.9 | 3.5 | 3.4 | 2.5 |
| 선진국 | 3.2 | 1.6 | 1.4 | - | 1.4 |
| 미국 | 3.0 | 1.7 | 2.1 | 2.4 | 2.1 |
| 유럽 | 1.9 | 1.4 | -0.3 | -0.1 | -0.3 |
| 신흥국 | 7.5 | 6.2 | 5.7 | - | 5.3 |
| 중국 | 10.4 | 9.2 | 8.2 | 8.2 | 8.2 |

자료 :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2. 2) OECD, *Economic outlook*, May 2012
 3)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2012.

○ 2012년 하반기 국내 경제 전망¹⁾

- (경제 성장) 2012년 한국 경제는 내수 경기 침체와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3%대 중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
 - 2012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0.5%p 하향 조정한 3.5%로 수정함
 - “上底下中” 기조 예상 : 2012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높은 3%대 후반을 기록할 것이나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 (내수 부문) 투자 부진 속 미약하나마 소비 회복 기대
 - 민간소비 : 물가 안정에 따르는 실질소득 증가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하반기에 완만하게 회복되어 상반기 1.7%보다 높은 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투자 : 민간부문 건설경기 침체 지속에 따라 건설투자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에도 2% 내외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 : 설비투자조정압력 축소, 기계수주 등 선행지표 하락으로 회복세가 약화될 전망이나 기저효과로 6%대 증가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대외 거래)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대외 불안 요인에 의해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축소될 전망
 -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증가율은 2011년 19.0%에서 2012년 4.5%, 수입은 23.3%에서 6.9%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1년 308억 달러에서 2012년 196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 경상수지도 2011년 265억 달러에서 2012년 130억 달러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1) 현대경제연구원 (2012. 6), 「상반기 국내 경제 특징과 수정 경제 전망」, 현안과 과제 참조.

- **(물가)** 내수 경기 부진 등으로 물가 안정세는 지속되어 소비자물가는 2011년 4.0%에서 2012년 2.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원화 환율)** 원화 가치는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유지 및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2012년 상반기 평균 1,140원에서 하반기 평균 1,110원으로 소폭 절상될 전망이다

< 주요 국내 경제 지표 전망 >

| 구 분 | | 2010 | 2011 | | | 2012(E) | | |
|-----------------|-------------|-------|-------|-------|-------|---------|-------|-------|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국민 계정 | 경제성장률 (%) | 6.3 | 3.8 | 3.4 | 3.6 | 2.9 | 3.9 | 3.5 |
| | 민간소비 (%) | 4.4 | 2.9 | 1.6 | 2.3 | 1.7 | 3.3 | 2.5 |
| | 건설투자 (%) | -3.7 | -7.1 | -3.0 | -5.0 | 1.9 | 2.4 | 2.1 |
| | 설비투자 (%) | 25.7 | 8.9 | -1.1 | 3.7 | 6.0 | 6.7 | 6.3 |
| 대외 거래 | 경상수지 (억 달러) | 294 | 81 | 184 | 265 | 55 | 75 | 130 |
| | 무역수지 (억 달러) | 412 | 153 | 155 | 308 | 80 | 116 | 196 |
| | 수 출 (억 달러) | 4,664 | 2,736 | 2,816 | 5,552 | 2,752 | 3,047 | 5,799 |
| | (증가율, %) | 28.3 | 23.6 | 14.9 | 19.0 | 0.6 | 8.2 | 4.5 |
| | 수 입 (억 달러) | 4,252 | 2,582 | 2,662 | 5,244 | 2,672 | 2,931 | 5,603 |
| | (증가율, %) | 31.6 | 26.7 | 20.2 | 23.3 | 3.5 | 10.1 | 6.9 |
| 소비자물가 (평균, %) | | 3.0 | 3.9 | 4.1 | 4.0 | 2.8 | 3.0 | 2.9 |
| 실업률 (평균, %) | | 3.7 | 3.8 | 3.0 | 3.4 | 3.5 | 3.1 | 3.3 |
| 원/달러 환율 (평균, 원) | | 1,156 | 1,102 | 1,114 | 1,108 | 1,140 | 1,110 | 1,1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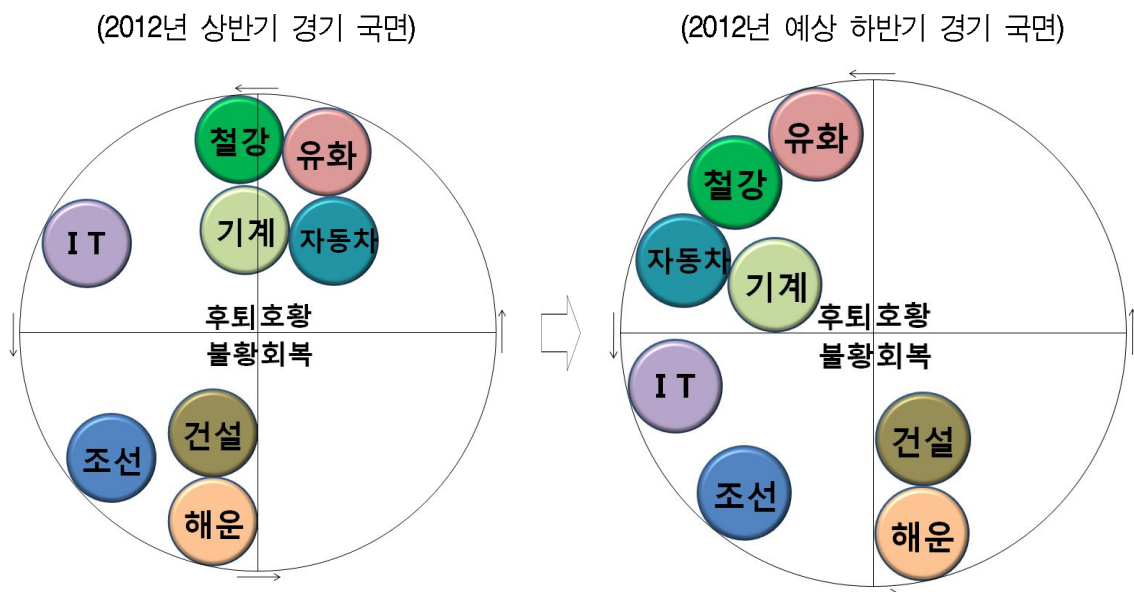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012. 6), 「상반기 국내 경제 특징과 수정 경제 전망」, 현안과 과제.

2. 2012년 하반기 산업 경제의 특징

(1) 주요 산업별 하반기 경기 국면 전망

- (경기 하강 산업) 세계 경제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기계, 철강, 자동차, 석유 화학 등의 주력 수출 산업은 호황 국면을 마치고 경기 하강 국면으로의 진입이 전망
- (업황 침체 산업) 조선업이 수주 침체로 불황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IT산업은 업종 경기를 선도하는 선진국 경제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회복 모색 산업) 개도국 중심의 수출 경기 유지 등으로 해운업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이며, 건설업도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미약하나마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변화 >



(2) 2012년 하반기 산업 경제의 특징

① (경기) 주요 산업의 경기 하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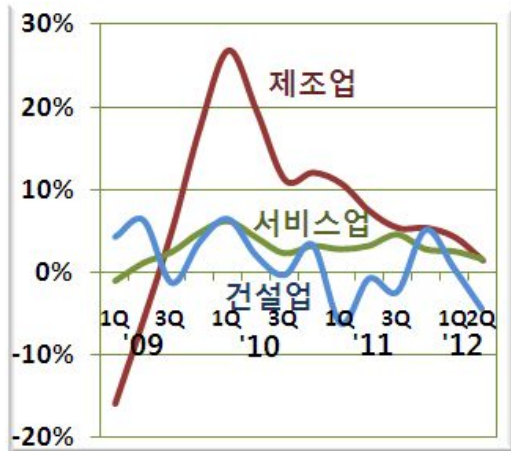
○ 대내외 여건 악화로 2012년 하반기 전반적인 산업 경기가 하강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 건설업의 생산 증감률이 2011년 3/4분기를 이후 최근까지 가파른 하락세를 지속중이어서 하반기에 경기 상황이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제조업 생산증감률은 2011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3%에서 올해 1/4분기에 4.2%, 4~5월에는 월평균 1.4%로 급락함
 - 서비스업 생산증감률도 작년 4/4분기와 올해 1/4분기에 모두 전년동기대비 2%대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4~5월에 들어 월평균 1.6%로 하락
 - 건설업(기성) 생산도 작년 하반기 증가세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올해 4~5월에 들어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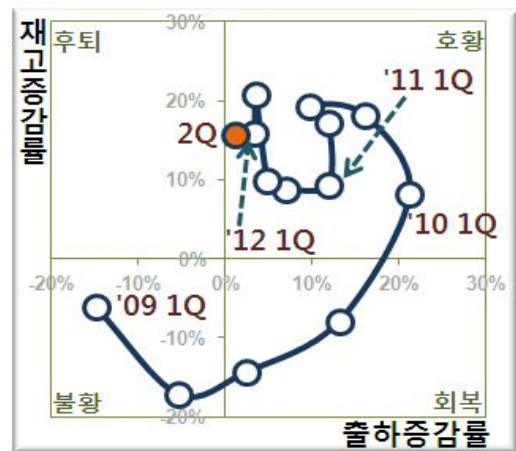
- 또한 제조업의 경우 재고증감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출하증감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 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
 - 제조업 출하증감률은 2011년 4/4분기와 2012년 1/4분기에 모두 전년동기대비 3%대를 기록하였으나 4~5월에 들어 월평균 1.2%로 하락함
 - 제조업 재고증감률은 올해 들어 평균 16%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며 재고조정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임
 - 향후 기업들이 출하 부진에 대응하여 생산 자체를 축소하여 재고증감률이 하락하는 국면에 진입해야만 경기 회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산업 경제의 부진은 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대외 여건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하반기 대외 여건이 빠르게 안정화 되면 일부 업종 경기가 회복 조짐을 나타낼 가능성도 존재

<주요 산업별 생산 증감률>



<제조업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12년 2/4분기는 4~5월 증가율 평균).

② (수출 시장) 기초 원부자재 산업 경기의 상대적 선전

○ 개도국 시장 수출 비중이 높은 기초 원부자재 산업들의 경기 허방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 그러나 중국 경제의 방향성과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내용에 따라 산업 경기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

- 하반기에는 선진국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도국 경제의 상대적 호조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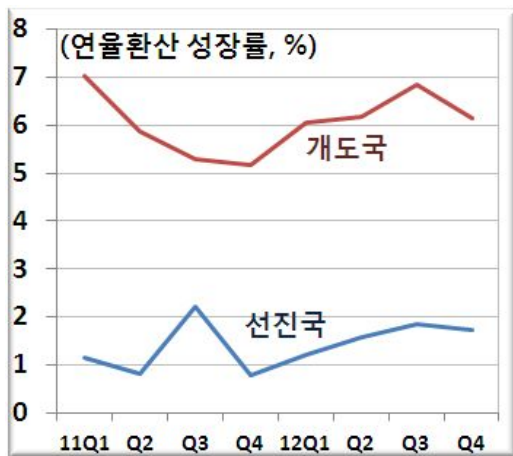
- IMF는 선진국의 2012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상반기보다는 높아지겠지만 연율 1%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개도국 및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2012년 3/4분기에 7% 내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 경제의 경우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어 경기가 허방 경직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됨

- 개도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초 원부자재 산업 경기는 상대적으로 덜 침체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경제의 향방과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내용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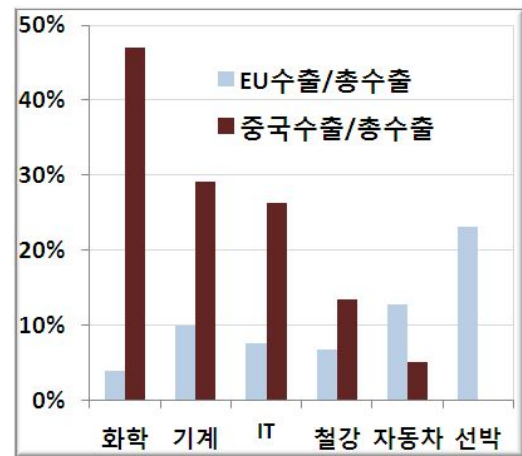
- 특히 개도국 경기를 선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화학, 기계, 철강 등의 산업이 상대적으로 침체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중국 경제가 예상 밖으로 경착륙 하거나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강도가 미흡할 경우 기초 원부자재 산업 경기의 급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IT 산업의 경우 대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나 선진국들이 세계 IT 경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경기의 회복 여부는 불투명함²⁾

<IMF의 선진/개도국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산업별 EU 및 중국 수출비중('11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한 계산.

③ (내수 시장) 수출보다 내수의 침체 심화

○ 수출 시장도 부진할 것이나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의 침체 폭이 더 클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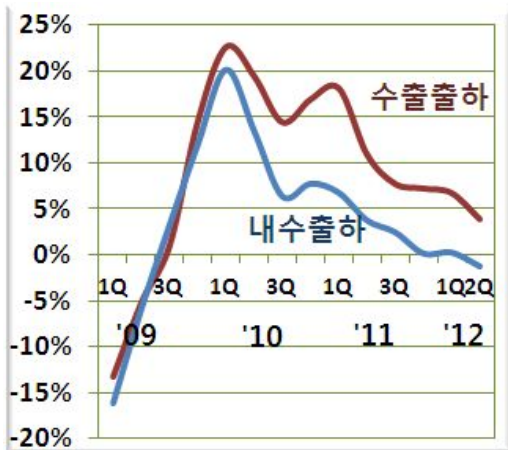
- 하반기 내수와 외수가 모두 수요 부진 국면에 위치할 것이나 내수 부문 경기가 수출 부문보다 더 부진할 것으로 전망

- 수출 부문의 출하 증감률은 2012년 1/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6%대를 유지하였으나 4~5월에 들어 월평균 3.9%에 그침

2) 다른 산업에 비해 IT 산업은 중국을 경유하여 선진국 시장으로 가는 우회수출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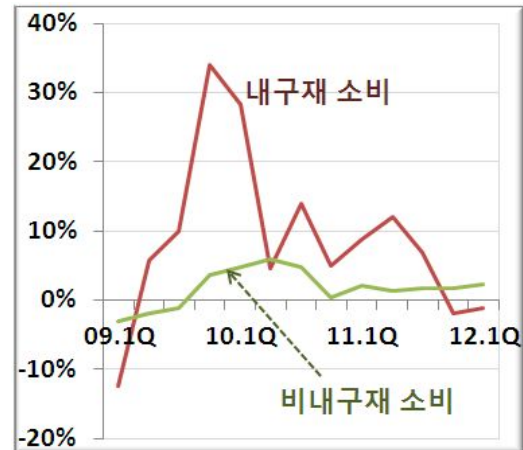
- 한편 내수 부문의 출하 증감률은 이미 2011년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지속하여 올해 4~5월에는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1.2%를 기록함
 - 하반기 수출 부문에 비해 내수 경기의 경우 소비 및 투자 심리 부진, 실질 구매력의 취약 등으로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내구재 소비가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수의 핵심인 소비 부문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소비 회복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내구재 소비는 2011년 4/4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어 부진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수출 및 내수 출하 증감률>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1) 내수 및 출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12년 2/4분기는 4~5월 증가율 평균.

<소비 부문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주: 전년동기대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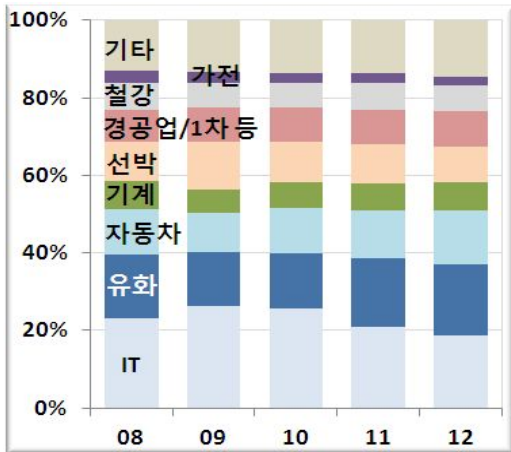
④ (산업) 성장 주도 산업들 간 위상 변화 예상

○ IT/조선의 성장 주도력이 크게 약화되는 가운데 유화/자동차의 산업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유화 및 자동차 산업의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IT 및 조선업의 수출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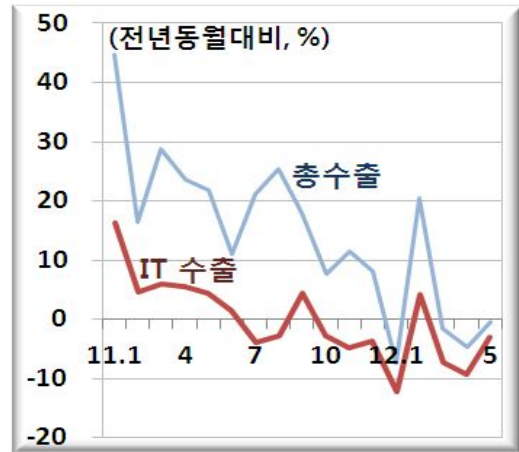
- 2009년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유화, 자동차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1~4월 기준 유화는 총수출의 18.4%, 자동차는 13.6% 비중을 차지함
 - 반면 IT 수출 비중은 2009년 26.2%에서 2012년 1~4월에 18.8%로 급락, 선박 수출 비중도 같은 기간 12.4%에서 9.4%로 하락함
- IT 경기는 하반기에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 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 총 수출은 최근에 들어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³⁾ IT 수출은 2011년 7월 이후 최근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지속중임⁴⁾
 - IT 수출 부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전년동기대비 $\Delta 20.3\%$)의 극심한 침체로 5월중 전년동월대비 1.7% 증가에 그침
 - 또한 5월중 평판디스플레이(전년동월대비 $\Delta 0.2\%$), 휴대폰($\Delta 36.7\%$) 등은 감소세를 기록함⁵⁾
 -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세계 IT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경제의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 당분간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수출품목수출/총수출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한 계산.
주: 2012년은 1~4월 기준.

<총수출 및 IT수출 증가율>



자료: 통계청, 지식경제부.

- 3) 총수출은 2012년 1월에도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4) 2011년 9월과 2012년 2월에 일시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한 적도 있음.
- 5) 2012년 1~5월중 IT 수출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반도체 비중 33%, 평판디스플레이 20%, 휴대폰 12% 등임.

⑤ (기업)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상대적 경기 부진

○ 경제 상황 악화의 영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입이 예상되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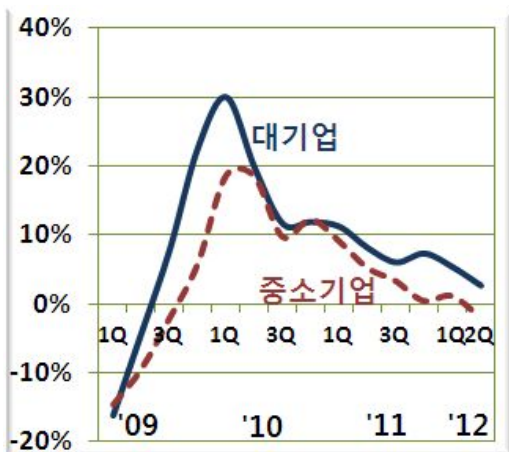
- 2011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율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 생산은 감소세로 전환

- 2011년 이후 중소기업의 생산 증감률이 대기업 생산 증감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됨
- 특히 올해 4~5월에 들어 대기업 생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2.6%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중소기업 생산 증감률은 -2.0%로 감소세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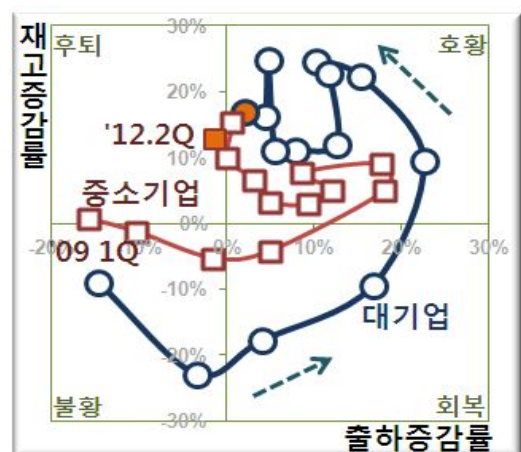
- 재고-출하 사이클상 향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경기 후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의 진행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

- 최근 중소기업의 출하 증감률 하락세가 대기업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시장 수요 침체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향후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수출 시장에 비해 부진한 정도가 더 클 것으로 보여 내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됨

<대기업/중소기업의 생산 증감률>



<대기업/중소기업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내수 및 출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12년 2/4분기는 4~5월 증가율 평균).

4. 시사점

- 향후 대내외 여건 개선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하반기 산업 경제의 부진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 경기 연착륙을 적극 도모해야 하는 시점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고려, 신흥 시장 수출 확대 노력, FTA 활용 극대화, 내수 산업 지원, 중소기업 위기 완화 등에 주력해야 할 것임

첫째, 하반기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고려해야 한다.

- 2012년 하반기 전반적인 산업 경기는 상반기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업 경기 연착륙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으로 판단됨
- 다만 경기 활성화 대책은 소비와 투자 심리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둘째, 선진국 시장의 수요 침체를 신흥 개도국에 대한 수출로 보완할 수 있는 수출 전략이 요구된다.

-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시장 수요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중남미 등 마이너 시장에 대해서도 해당 시장에 대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통·물류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의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임

셋째, FTA 활용 극대화를 통해 선진국에 대한 수출 경기 급락을 방지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는 한-EU FTA 및 한-미 FTA로 유럽 및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기회를 충분히 살려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FTA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원산지검증시스템 도입과 기업들의 인증심사를 위한 지원 및 관련 인력 확충이 필요함
- 특히 하반기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출 시장인 유럽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 무역, 산업, 분업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내 지역별 수출 및 투자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동유럽 지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서유럽 지역으로 이동되는 역내 무역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 우선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중간재 수출과 현지 조립 가공 산업 진출 등을 통한 서유럽 지역으로의 우회수출로 EU 역내 교역 프로세스에 편입하여 시장의 다양한 특성과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넷째, 내수 침체에 대응하여 소비재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주력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감면, 금융 지원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함
- 특히 내수 파급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수요의 진작 노력이 요구됨
 -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서비스업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내수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함
 - 관광업, 사업서비스업 등 유망 내수 관련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전략 추진을 통해 서비스업을 고부가 업종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임

다섯째, 상대적으로 침체 정도가 심한 중소기업 부문의 위기를 완화시켜야 한다.

- 수출 시장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력과 마케팅 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중소기업의 수출 공조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 요구됨
- 내수 시장에서 정부 조달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우대 정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수요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임

산업별 담당 연구원

| | |
|-----------------|--|
| 【총괄】 | 한상완 산업연구본부장 (swhan@hri.co.kr, 2072-6230) |
| | 주 원 수석연구위원 (juwon@hri.co.kr, 2072-6235) |
| 【조선업】 | 예상한 연구위원 (syeahk@hri.co.kr, 2072-6232) |
| 【기계산업】 | 조규림 연구원 (jogyurim@hri.co.kr, 2072-6240) |
| 【자동차산업】 | 장우석 연구위원 (jangws@hri.co.kr, 2072-6237) |
| 【철강산업】 | 김필수 선임연구원 (phil7941@hri.co.kr, 2072-6238) |
| 【석유화학산업】 | 안중기 연구원 (hri21201012@hri.co.kr, 2072-6242) |
| 【해운업】 | 전해영 선임연구원 (haloween@hri.co.kr, 2072-6241) |
| 【IT제조업】 |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johnlee@hri.co.kr, 2072-6231) |
| 【건설업】 | 이원형 연구위원 (lee@hri.co.kr, 2072-6233) |

【부록】 산업별 최근 경기 동향과 2012년 하반기 전망

| | |
|----------------|----|
| ① 조선업 | 16 |
| ② 기계산업 | 19 |
| ③ 자동차산업 | 22 |
| ④ 철강산업 | 25 |
| ⑤ 석유화학산업 | 28 |
| ⑥ 해운업 | 31 |
| ⑦ IT제조업 | 34 |
| ⑧ 건설업 | 37 |

① 조선업

하반기 조선업은 수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수출 부문도 부진한 실적이 예상

○ (2012년 상반기 경기 동향) 2011년 말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의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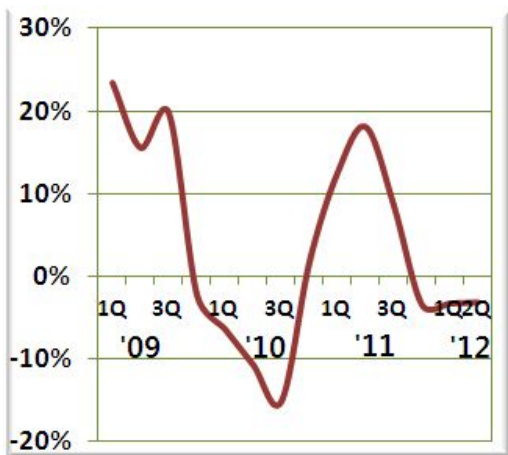
- (생산) 2012년 상반기 조선업 경기는 2011년 4/4분기부터 시작된 침체의 연장 선상에 위치

- 조선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생산지수 증감률은 2012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3.4%, 4~5월에는 월평균 -3.3%를 기록

- (수주) 신규 수주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수주 잔량도 감소하는 모습

- 한국조선협회 9개 회원사의 2012년 1/4분기 신규수주는 2011년 1/4분기의 277만 CGT⁶⁾보다 100만 CGT가 줄어든 172만 CGT 기록
- 이에 따라 2012년 1/4분기 수주잔량은 3,114만 CGT로 2008년 3/4분기 5,723만 CGT로 정점을 형성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 < 국내 조선 신규수주량 및 수주잔량 >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한국조선협회.

주: 1)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12년 2/4분기는 4~5월 증가율 평균),

2) 신규수주량 및 수주잔량은 9개 회원사 기준.

6) 표준화물선 환산 톤수 (Compensated Gross Tonnage).

○ (2012년 하반기 전망) 수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수출 부문도 부진한 실적이 예상

- (수주량) 탱커, 화학제품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신규수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규모는 전년 동기에 비해 대폭 감소 전망

- 대형조선사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신규 선박 발주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전체 규모는 EU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작년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건조량) 기존 계약 이행에 따른 건조로 이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선박의 건조는 계약에 의거한 스케줄에 따라 진행돼 통상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 2012년 건조 물량은 주로 2010년에 발주한 선박과 그 이전에 발주되어 건조 기간이 길어진 선박으로 전체적인 물량은 2011년과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출) 건조 물량의 정체에 인도 지연이나 거부가 겹치면서 수출은 이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해운 경기 불확실성 증폭으로 선사들의 인도 지연요구나 거부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수출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조선업 전망 >

| | 2010 | 2011 | 2012(E) | |
|---------------|---------------|----------------|---------------|---------------|
| | | | 2011년 11월 전망 | 2012년 6월 전망 |
| 신규수주량 (만 CGT) | 815 (478%) | 1,163 (43%) | 1,500 (0%) | 600 (△48%) |
| 건조량 (만 CGT) | 1,269 (3%) | 1,355 (6%) | 1,500 (7%) | 1,300 (0%) |
| 수출규모 (억 달러) | 467 (10%) | 541 (15%) | 660 (15%) | 500 (△7%) |

자료: 실적치는 한국조선협회(수주량, 건조량은 회원사 9개 합계 기준),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국내 중소조선사들의 위기, 중국 조선업의 구조조정, EU의 탄소세 도입 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
 - (중소 조선사들의 위기) 수주 물량인 적은 중소 조선사들이 늘어나면서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신규 수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재 제작중인 선박의 인도로 수주 잔량이 완전히 고갈되는 중소 조선사들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
 - 2012년 2월 '삼호조선'이 청산되고 '21세기조선'은 6월 법정관리를 앞두고 있음
 - (중국 조선업의 구조조정) 중국 조선업이 국가 정책에 힘입은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수의 기업들로 재편 예상
 - 현재 중국에는 약 1,600개의 조선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2~3년 사이에 이중 절반이상이 청산이나 인수합병을 통해 사라질 것으로 전망
 - 2012년 3월 12일 중국정부는 <조선업 12.5 발전규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2015년까지 중국 조선 산업체계를 더욱 개선하고 산업구조를 합리화시키며, 혁신능력과 산업의 종합능력을 현저히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천명
 - China Shipbuilding Industry Corp., China Rongsheng Heavy Industries, Yangzijiang Shipbuilding 등 상위 조선사들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EU의 탄소세 도입) EU가 탄소세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노후 선박의 교체수요 발생 예상
 - 현재까지 국제해사기구의 CO₂ 규제는 신조선에 국한된 것으로 노후화 선박의 교체 등 신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함
 - 2012년 2월 21일 유럽재무장관회의는 탄소세 도입을 전제로 논의를 시작했고 이후 이에 대한 정책적 후퇴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
 - EU의 탄소세도입은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를 빠르게 앞당길 것으로 보이며 저연비, 친환경 선박의 설계·제작에 경쟁력 있는 조선사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

② 기계산업

글로벌 경제의 미약한 회복과 이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로 인해 기계 산업의 수출 및 생산 증가세는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 (2012년 상반기 경기 동향)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내외수 부진으로 생산 및 수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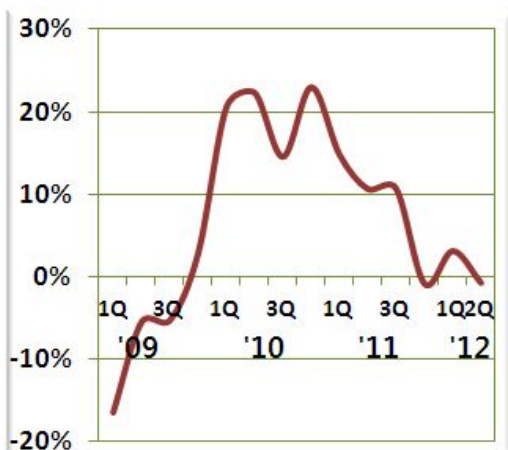
- (생산 및 재고·출하) 생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재고·출하 사이클 상 경기 후퇴기 진입이 임박

- 국내 설비투자 감소,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해외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기계 산업의 생산 증가세가 크게 둔화
- 재고·출하 사이클 상 호황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출하 증가율이 4~5월에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0.5%를 기록하며 후퇴국면 진입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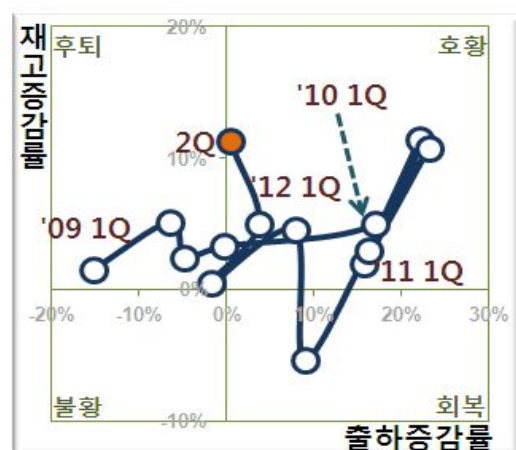
- (수출) 미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對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기계 산업 수출은 다소 부진

<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12년 2/4분기는 4~5월 증가율 평균).

- (2012년 하반기 전망) 글로벌 경제의 미약한 회복과 이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로 인해 기계 산업의 수출 및 생산 증가세는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생산 정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둔화와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설비투자 침체로 기계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
 - 유로존 문제에 따른 글로벌 경제 성장세 약화는 해외의 설비투자 수요 감소로 이어져 국내 기계 산업 생산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해외 경기 침체는 국내 주력 제조업의 수출 감소와 기업의 투자심리 악화를 초래하여 이에 따라 국내 기계 수요도 부진할 전망
 - (수출 둔화) 유럽발 세계 경기침체 확대 가능성, 중국 경제의 긴축기조 등으로 하반기 기계산업의 수출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유럽 재정 위기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려워 보여 수출 증가세는 제한적일 전망
 - 그러나 한-미 FTA에 따른 대미 수출 경쟁력 강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의 견조함 등에 힘입어 미국과 중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수입 소폭 증가) 국내 경기 부진에 따른 내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에 따른 對 EU 기계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기계산업 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계산업 전망 >

| 구 분 | 2010 | 2011 | 2012(E) | |
|----------|--------------|--------------|--------------|--------------|
| | | | 2011년 11월 전망 | 2012년 6월 전망 |
| 생 산 (조원) | 90 (25%) | 103 (14%) | 112 (9%) | 110 (7%) |
| 수 출 (억불) | 378 (33%) | 468 (24%) | 515 (10%) | 515 (10%) |
| 수 입 (억불) | 332 (27%) | 340 (3%) | 365 (7%) | 357 (5%) |

자료: 실적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주요 현안)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향방,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 모색, 서비스 부문 육성 필요성 증대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

- (중국 경기부양 정책) 하반기 중국의 경기부양책의 정책 방향에 따라 침체되었던 對중국 기계 수출의 회복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

- 최근 중국 경제 위축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하반기 12차 5개년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따른 중국의 철도, 고속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투자 증가는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對중국 기계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자국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부양 혜택이 중국 기업에 집중될 경우 경기부양 효과가 국내 기계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

-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 모색) 유럽 위기 및 엔고 등으로 주요 경쟁국 기계산업 위축이 예상되며 이는 국내 관련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음

-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엔고에 따른 일본 제조업 침체는 기계업체들의 내수와 수출 감소로 이어져 세계시장에서의 위상이 악화
-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의 기계업체 역시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인해 영업 및 투자 환경에 어려움이 예상
- 주요 경쟁국의 기계산업 위축에 따른 한국 기업의 반사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

- (서비스 부문 육성 필요성 증대) 기계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서비스 부문 인프라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될 전망

- 국내 기계산업은 고용, 생산 등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중심의 구조를 유지
- 독일, 일본, 미국 등의 경우 기술지원, 중고기계 유통, 금융상품 연계 등 기계산업 서비스 부문 확대를 통해 제조-서비스의 동반 부가가치 제고를 도모
- 기계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중고기계 유통체계 구축, 기계설비 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 서비스 부문 인프라 조성 필요성이 확대될 전망

③ 자동차산업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내수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은 유럽 지역 수출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판단

○ (2012년 상반기 동향)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 시장 부진으로 전반적인 성장세 둔화

- (생산 및 재고·출하) 2012년 상반기 자동차 내수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생산·출하·재고 증가율이 모두 하락

- 2012년 1/4분기 자동차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하였으나 4~5월에 들어 월평균 6.5% 증가에 그침
- 재고-출하 사이클 상으로 출하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재고 증가율은 10%를 상회하는 모습
- 2012년 1월~5월 내수 판매량은 57만대로 전년동기대비 6.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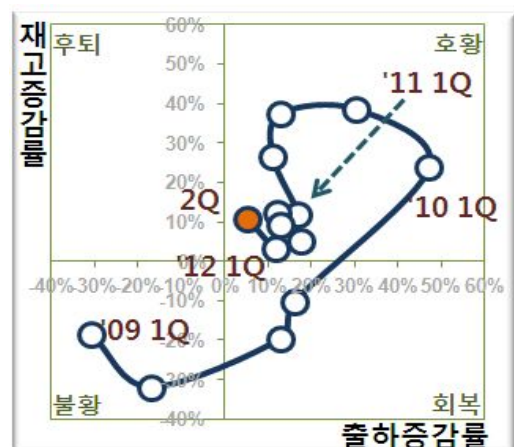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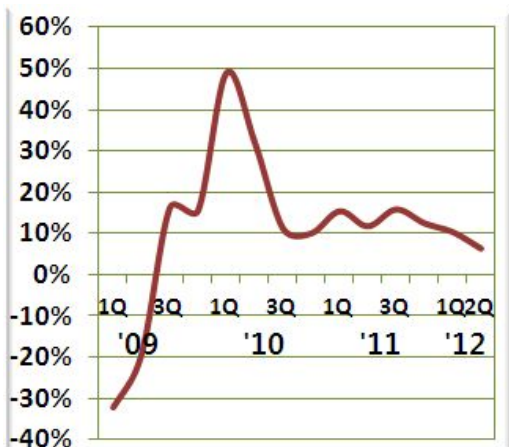
- (수출) 세계 자동차 수요 증가, 한국차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은 증가세 지속

- 2012년 1~5월 자동차 수출은 140만대로 전년동기대비 13.3% 증가를 기록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12년 2/4분기는 4~5월 증가율 평균).

○ (2012년 하반기 전망)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 시장은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 (수출 증가세 지속) FTA 효과, 신흥국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은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이나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 향상, 한-미 FTA 발효, 신흥 시장의 자동차 수요 증가는 자동차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하반기에도 유럽 경제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한-EU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에 대한 수출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존재

- (내수 시장 부진) 소비자 구매력 감소로 내수 자동차 판매대수는 정체될 것으로 보이나 고연비 차량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용 시장 부진, 가계 부채 문제의 지속 등에 의한 구매력 확충 미흡으로 자동차 수요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워 내수 시장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차종별로는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소비심리의 확산으로 연비가 높은 경차, 소형차,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 비중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한편 한-EU FTA, 한-미 FTA의 영향으로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내수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자동차산업 전망 >

| 구 분 | 2010 | 2011 | 2012(E) | |
|----------|--------------|--------------|--------------|--------------|
| | | | 2011년 11월 전망 | 2012년 6월 전망 |
| 생 산 (만대) | 427 (22%) | 466 (8%) | 475 (2%) | 471 (1%) |
| 내 수 (만대) | 147 (5%) | 147 (1%) | 152 (3%) | 138 (△6%) |
| 수 출 (만대) | 277 (29%) | 315 (14%) | 321 (2%) | 339 (8%) |
| 수 입 (만대) | 9 (49%) | 11 (16%) | 12 (18%) | 12 (14%) |

자료: 실적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내수는 국산차 판매 기준, 수출은 통관 기준, 수입치는 신규 등록 기준.

○ (주요 현안) 신흥국 시장의 경쟁 심화, 이동통신·IT 산업과의 융합 가속화, 하이브리드 기술 경쟁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

- (신흥국 시장 경쟁 심화) 선진국 자동차 수요 포화, 신흥국 중산층 성장 등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신흥국 시장 공략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선진국 중심의 성장 전략을 대폭 수정하여 인도,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의 중산층 공략에 집중
- 도요타, 현대차, 폴크스바겐, GM, 르노-닛산 등 5개사는 신흥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면서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음
- 특히, 일본 기업들은 현지 부품조달 및 생산체제 구축에 기반한 초저가 차량 출시, 신흥국 전용 고연비 전략차종 개발 등으로 신흥국 시장에 적극 진출

- (이동통신·IT 산업과의 융합 가속화) 전자·통신 업체들과 자동차 업체들은 융합 서비스 개발을 위해 긴밀한 제휴·협력에 나설 전망

- 자동차의 전자화 추세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완성차 업체들과 전자·반도체 업체들은 스마트카 개발을 위한 제휴를 적극 추진 중
-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연결해 원격 시동, 원격 문열림, 차량 진단, 도로 정보 제공, 오디오·비디오 재생 등을 제공하는 텔레매틱스 서비스 본격화
- 이동통신 업체와 자동차 업체가 고객에게 자동차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십 연계 패키지, 카쉐어링 업체와 연계된 위치기반 서비스 등장

- (하이브리드 기술 경쟁) 향후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투자 및 특허권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

- 미국 등 각국 정부가 친환경 규제를 더욱 강화함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 간 연비 경쟁, 하이브리드차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업계의 연구개발 인력 확보, 연구 개발 투자 비용 상승 등의 경영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완성차 및 부품 업체들은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하이브리드차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독자적인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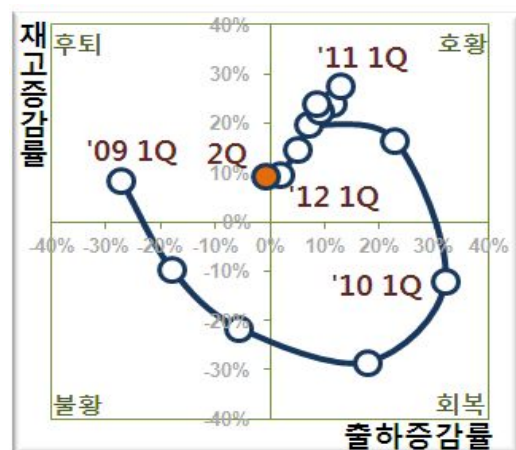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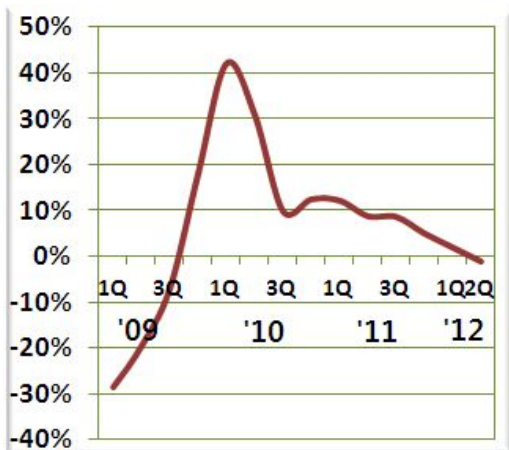
④ 철강산업

내수와 수출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수출보다는 내수 증가세 하락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

○ (2012년 상반기 경기 동향) 생산 및 수출 증가세의 둔화

- (생산 및 재고·출하) 생산 증감률이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며 재고·출하 사이클 상에서 경기 후퇴 국면으로의 진입
 - 철강 생산 증감률은 2011년 하반기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하여 2012년 4~5월에는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1.1%의 감소세로 전환
 - 재고-출하 사이클상 2012년 1/4분기까지 호황 국면을 유지하였으나 4~5월에 들어 출하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경기 후퇴 국면으로 진입
- (수출) 2012년 1~5월중 철강제품⁷⁾의 수출은 중량 기준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하였으나 국제 철강재 가격 하락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8.1% 증가

< 1차 철강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12년 2/4분기는 4~5월 증가율 평균).

7) MTI 61 기준, 한국무역협회.

- (2012년 하반기 전망) 내수와 수출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수출 증가량보다는 내수 증가량의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
 - (수요 위축) 전망 산업의 생산 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수 부진이 지속될 것이나 수출 증가율은 내수 증가율보다 높을 전망
 - 자동차, 조선 등 전망 수출 산업의 부진, 건설 경기의 제한적 회복 등으로 내수는 소폭 증가하는 데에 그칠 전망
 - 세계 전체의 철강 수요는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수출은 내수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공급 증가세 둔화) 수요 부문의 증가세 둔화로 생산과 수입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
 - 국내외 철강재 수요 증가세 둔화 및 일부 업체의 후판 생산 라인 일부 폐쇄 등의 영향으로 생산 증가율은 당초 예상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수입은 2011년에 이어 감소세의 지속 예상, 단 중국 업체들의 저가 밀어내기 수출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철강 산업 전망 >

(단위: 만 톤)

| | 2010 | 2011 | 2012(E) | |
|-----|----------------|----------------|----------------|----------------|
| | | | 2011년 11월 전망 | 2012년 6월 전망 |
| 총수요 | 7,727 (17%) | 8,548 (11%) | 8,930 (5%) | 8,830 (3%) |
| 내수 | 5,239 (15%) | 5,639 (8%) | 5,840 (3%) | 5,730 (2%) |
| 수출 | 2,488 (21%) | 2,909 (17%) | 3,100 (6%) | 3,110 (7%) |
| 총공급 | 9,103 (17%) | 9,540 (5%) | 9,780 (3%) | 9,640 (1%) |
| 생산 | 6,594 (16%) | 7,228 (10%) | 7,510 (4%) | 7,430 (3%) |
| 수입 | 2,509 (22%) | 2,312 (△8%) | 2,270 (△2%) | 2,210 (△4%) |

자료: 실적치/추정치는 한국철강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입량에는 핫코일, 반제품 등 철강재 소재가 포함됨.

- (주요 현안) 원가 변동 요인들의 동반 부상, 신시장 개척의 필요성 증대, 중국 철강업 구조조정 여부 등이 주요 현안으로 작용
- (원가 변동 요인 등의 동반 부상) 환율 변동성 증대, 전기 요금 인상, 원재료 생산 증대 등 제조 원가를 변동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동시 부상 중
 - 유럽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및 이에 따른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는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철강 산업의 리스크 요인
 - 철강 산업은 고로 및 전기로 등에서의 전기 사용량이 막대하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은 제조 원가의 주요 변수 중 하나
 - 반면 2011년 2분기 이후 철광석 및 원료탄의 생산량 증대 및 가격 하락 추세, 철강 제조업체들의 광산 확보 노력 등은 원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신시장 개척의 필요성 증대) 생산 능력 및 생산량 증대에 따른 국내 철강 제품의 공급과잉 상황의 발생으로 해외 판로 확대의 중요성이 증대
 - 한국은 철강 시설 능력의 대폭 확충에 따라 2011년을 기점으로 철강재 순수 출국으로 전환
 - 반면 생산량 증가에 비해 수요 증가 폭은 제한적으로 열연·냉연강판, 후판 등 철강 제품 대부분에서 초과 공급 상황이 발생
 - 결국 증가한 생산량의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는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시장의 확대가 과제로 부상
 - (중국 철강업 구조조정) 중국 정부가 12·5 계획을 통해 표명한 제조업 구조 조정의 철강업에 대한 실천 여부에 관심이 집중
 - 현재 중국 철강 산업의 과잉 생산은 현지 업체의 수익성 악화 및 국제 철강재 가격 인하, 한국의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
 - 동시에 세계 최대 철강 수요국인 중국의 산업구조가 인프라 투자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변화 시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
 - 이에 중국 정부의 철강 산업 구조조정 개시 여부는 향후 수년 동안 세계 철강 수급 불균형 완화 및 수익성 개선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

⑤ 석유화학산업

수출과 내수 모두 경기 하강 국면으로의 진입이 불가피해 보이거나 개도국 경기의 상대적 선전 등으로 경기 부진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2012년 상반기 경기동향)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 경기는 침체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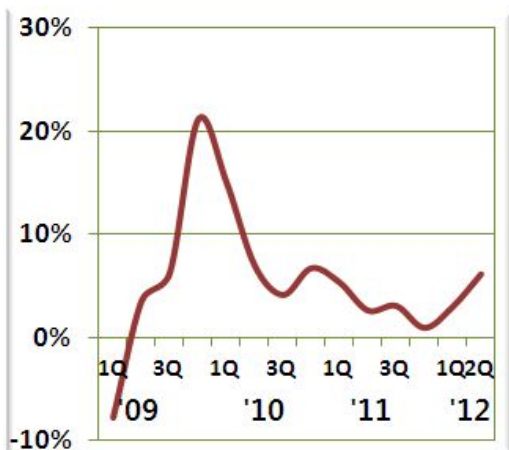
- (생산 및 재고·출하) 다른 산업과 달리 올해 들어 생산 증감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출하는 증가세를 유지

- 생산 증감률은 2011년 4/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4~5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6.2%를 기록
- 특히 출하 부문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출하 부문별로는 내수 출하가 증가세를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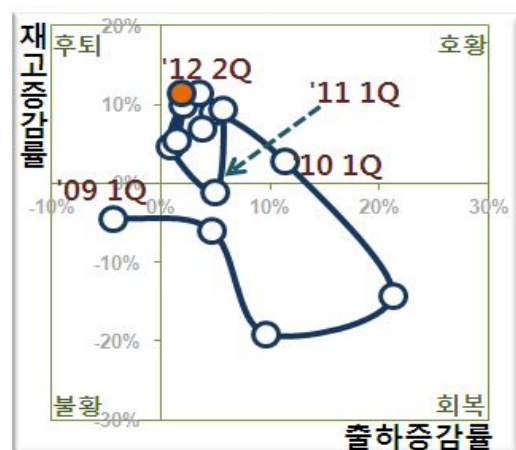
- (수출입) 1~4월중 수출액 증감률은 석유제품이 약 전년동월대비 16%, 석유화학제품이 전년동월대비 2% 내외를 유지, 그러나 5월중으로는 석유제품과 화학제품 모두 소폭 감소세를 기록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12년 2/4분기는 4~5월 증가율 평균).

- (2012년 하반기 전망) 수출과 내수 경기 모두 하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나 개도국 경기의 상대적 선전 등으로 경기 부진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수출 증가세 유지) 하반기 세계 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석유화학제품 수출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유럽 경제의 경기 하방 리스크 완화, 미국 경제의 회복 분위기 시현 등을 전제로 하고,
 - 중국 정부가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실시할 예정인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 등을 감안할 경우 수출 경기의 부진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내수 증가세 제약) 내수 부문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 전방 산업들의 부진 등으로 그 증가폭은 미약할 것으로 전망
 - 일부 전방 산업 경기가 일정 수준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하반기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증가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존재
 - 전반적인 산업 경기가 부진하여 하반기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석유화학산업 전망 >

| 구 분 | 2010 | 2011 | 2012(E) | |
|----------|----------------|----------------|---------------|---------------|
| | | | 2011년 11월 전망 | 2012년 6월 전망 |
| 생 산 (만톤) | 2,136 (2%) | 2,137 (0%) | 2,180 (2%) | 2,180 (2%) |
| 수 출 (만톤) | 1,182 (△2%) | 1,163 (△2%) | 1,175 (1%) | 1,175 (1%) |
| 수 입 (만톤) | 85 (10%) | 94 (11%) | 102 (8%) | 100 (6%) |
| 내 수 (만톤) | 1,025 (8%) | 1,056 (3%) | 1,110 (5%) | 1,080 (2%) |

자료: 실적치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석유화학 산업 전망은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합으로 산출함.

○ (주요 현안) 제품별 수익성 양극화, 제품 및 공정 혁신 확산, 중동 산유국과 중국의 영향력 심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이 주요 현안이 될 전망

- (제품 수익성의 양극화) 원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에틸렌 계열 제품보다 非에틸렌 계열 제품의 수익성이 더 높은 양극화 현상 지속이 예상

- 저렴한 에탄가스를 이용한 에틸렌 계열 제품의 공급이 확대되어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나프타를 이용한 에틸렌 계열 제품의 수익성 하락이 지속됨
- 반면 나프타를 이용한 非에틸렌 계열 제품은 에탄가스를 이용하여 생산할 수 없으므로 공급 과잉의 우려가 없고 지속적인 수요 증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수익성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

- (제품 및 공정 혁신 확산) 성숙기에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혁신적 생산방법이나 신기술과의 융합 모색

- (제품 혁신) 관련 기업들은 바이오·나노 기술 등과 융합하여 새로운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제품 창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
- (공정 혁신) 북미의 석유화학업체들은 셰일가스⁸⁾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도약을 모색 중에 있고 중국도 세계 최대의 셰일가스 매장량을 바탕으로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음

- (중국과 중동의 영향력 심화) 전세계 석유화학제품 수급과 가격을 좌우하는 중동과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대응방안 마련 요구됨

-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중동의 대규모 증설과 주요 수출 지역인 중국의 자급률 상승에 따라 수출 채산성 악화 우려가 증대
- M&A 등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중동지역 산유국이나 중국 등 신흥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수출물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기 때문에 위협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수출 다변화 전략이 요구됨

8) 셰일가스(Shale Gas)란 모래와 진흙이 굳은 암석층에 함유된 메탄가스로 천연가스의 일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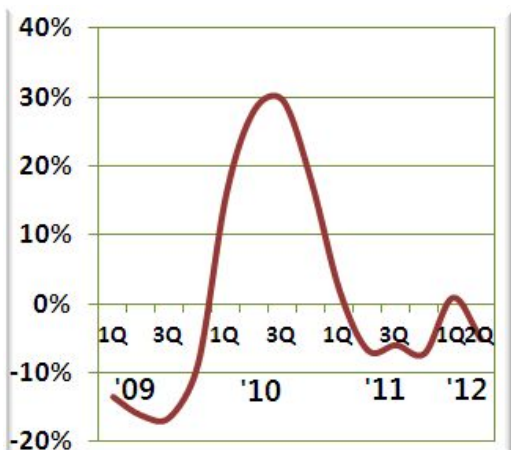
⑥ 해운업

선진국 경제가 다소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다는 전제하에 개도국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제한적으로나마 물동량 증가세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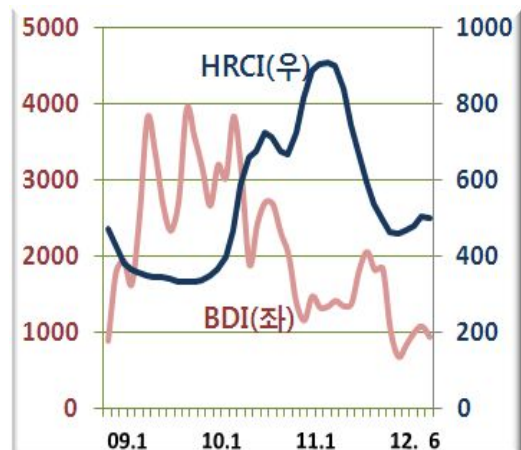
○ (2012년 상반기 경기 동향) 절대적인 수준 자체의 선진국발 악재가 다소 안
정되면서 업종 경기 부진에서 회복 중

- (생산지수) 상반기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증감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중
 -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2011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7.2%에서 2012년 1/4분기 0.9%로 상승, 그러나 4~월중 월평균 -5.2%로 다시 하락하는 등 업종 경기의 방향성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판단
- (해운시황) 벌크 및 컨테이너 용선지수들이 모두 연초에 대비 미약하나마 상승 추세를 시현
 - 벌크선 BDI는 2012년 2월 3일 1986년 이후 최저점인 647p를 기록 후 반등하여 미약한 상승세를 지속
 - 컨테이너 HRCI도 연초 2009년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최근 들어 상승세로 반전

<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증감률 >



< 주요 해운업 용선지수 >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국토해양부.
주: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12년 2/4분기는 4~5월 증가율 평균).

- (2012년 하반기 전망) 선진국 경제가 다소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다는 전제하에 개도국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제한적으로나마 물동량 증가세 전망
- (컨테이너선) 선진국 경기 침체세가 진정되고 개도국의 성장 지속으로 물동량은 소폭의 증가세 전망
 - 유로존의 경제 불안 요인이 다소 완화되고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물동량이 소폭 개선될 가능성이 존재
 - 또한 개도국들은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갈 것으로 보임
- (벌크선) 개도국을 중심으로 물동량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나 부문 내 수급 불균형 문제가 상존하여 시황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신흥개도국의 산업 발전을 위한 원자재 수요가 지속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물동량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그동안 누적된 인도 지연 선박이 시장에 투입되면서 시장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시황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판단
- (유조선) 시장 공급 능력 확대, 제한적 수요 증가세 등으로 유조선 시황은 2011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금년에도 신규 VLCC 선박이 지속적으로 인도되면서 시장 공급이 증가할 전망이다인 가운데,
 - 유가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불안으로 석유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유조선 시황은 2011년 수준, 또는 소폭 개선 예상

< 주요 해운지수 전망 >

| 구 분 | 2010 | 2011 | 2012(E) | |
|---------------------------|---------------|-----------------|---------------|-----------------|
| | | | 2011년 11월 전망 | 2012년 6월 전망 |
| 컨테이너선 [HRCI (1997=1,000)] | 553 (51%) | 763 (38%) | 800 (5%) | 800 (5%) |
| 벌크선 [BDI (1985=1,000)] | 2,761 (6%) | 1,549 (△44%) | 1,600 (3%) | 1,250 (△20%) |
| 유조선 [AG-동아시아(WS)] | 69 (64%) | 53 (△24%) | 54 (2%) | 55 (4%) |

자료: 실적치는 해양수산개발원,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위 수치들은 기간중 평균치임.

○ (주요 현안) 해운업에는 산업 경쟁 구도 재편, 공급 조절, 선사-화주간 협력 강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

- (산업 경쟁 구도 재편) 산업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선사 간 협력이 구체화되면서 산업 경쟁 구도가 변화할 것

- 선사들이 침체 돌파 방안으로 선사간 협력을 추진하면서 세계2-3위 선사⁹⁾가 전략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선사 얼라이언스인 G6¹⁰⁾ 등이 등장
- 2012년에도 선사들은 공동운항, 공동배선 등 협력을 강화해나가면서 산업 경쟁 구도가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변화할 전망
- 이와 더불어 자원·고객관리 등 부문에서의 개별 선사들의 영업 전략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 (공급 조절) 수급 정상화를 위한 선사들의 공급 조절 노력이 증대될 것

- 선사들이 수급 개선을 위해 저속운행, 계선, 폐선 선박 범위의 확대, 인도 지연, 신규발주 취소 등 다각도의 선박 공급 억제에 나서고 있음
- 현재 해운업의 수익성 악화는 공급 과잉에 기인한 측면이 높다는 점에서, 선사들의 공급 조절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
- 다만 최근의 운임 상승세로 인해 다시 공급 확대 조짐이 나타날 수 있어 산업차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관건

- (선사-화주간 협력 강화) 현재의 해운 운임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선사-화주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초저운임이 지속되면서 누적된 적자를 건디지 못한 선사들의 운임 정상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
- 현재의 운임수준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며 향후 운임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물류비용 증가에 대비하려는 화주들이 늘어날 것
- 이에 따라 현재의 운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회복하고 향후 운임 증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사-화주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음

9) 세계 2위 MSC 와 세계 3위 CMA CGM.

10) NYK, Hapag-Lloyd, OOCL, APL, 현대상선, MOL 등 6개사.

⑦ IT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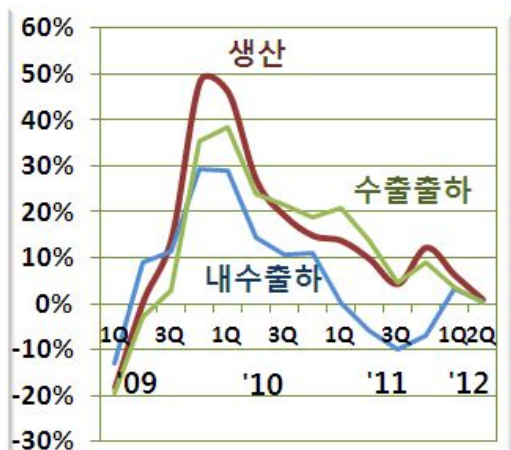
하반기 세계 경제 상황의 개선이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공급 과잉 조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2012년 상반기 경기 동향) 2012년 상반기 현재 IT제조업은 호황 국면을 마무리하고 후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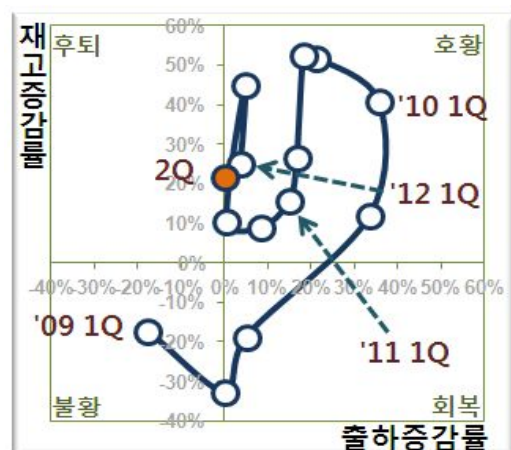
- (생산 및 재고·출하) IT제조업은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이 하락하는 모습
 - 생산 증감률은 2011년 4/4분기 일시 반등하였으나 2012년 1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중
 - 특히 재고-출하 사이클상 4~5월 현재 IT제조업은 경기 후퇴 국면으로 진입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
- (부문별 경기) IT제조업 경기를 좌우하는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기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메모리반도체는 단가가 회복되고 있으나 전년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생산과 수출이 모두 부진
 - 휴대폰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

< IT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12년 2/4분기는 4~5월 증가율 평균).

○ (2012년 하반기 전망) 하반기 세계 경제 상황의 개선이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공급 과잉 조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하반기 세계 경제가 다소 개선될 가능성은 있으나 가시적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IT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은 모두 전년대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IT 제품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중국(홍콩 포함) IT 수출 비중 : 2011년 47.2%, 2012년 1~5월 49.6%

· 세계 IT 경기를 선도하는 선진국들의 경제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여 수출은 전년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다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세계 경제 상황의 개선 등의 영향으로 업종 경기가 미약하나마 회복되는 조짐을 보일 가능성도 존재

- 주요 부문별로는 반도체와 휴대폰이 소폭 개선 가능성이 보이나 디스플레이 패널은 여전히 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상대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업체들의 공급 조절과 함께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의 신제품의 출시 그리고 MS-Windows 8 시판에 따른 수요 개선 등이 다소나마 업종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디스플레이 패널: 여전히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등 시장에서의 공급과잉 문제가 업종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

< IT제조업 전망 >

| 구 분 | 2010 | 2011 | 2012(E) | |
|-----------|----------------|---------------|---------------|---------------|
| | | | 2011년 11월 전망 | 2012년 6월 전망 |
| 생산 (조 원) | 296 (30%) | 301 (2%) | 307 (2%) | 304 (1%) |
| 수출 (억 달러) | 1,539 (27%) | 1,566 (2%) | 1,598 (2%) | 1,560 (0%) |
| 수입 (억 달러) | 756 (22%) | 815 (8%) | 938 (15%) | 856 (5%) |

자료: 실적치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IT제조는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를 포함.

- (주요 현안) 반도체 업체간 경쟁 격화, 구조조정 심화 및 시장 재편 가능성 대두, 미래 핵심사업분야의 선점 가열 등이 IT산업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
 - (반도체 업체간 경쟁 격화) 반도체 수급의 안정화, 엘피다의 매각종료 등 시장 여건이 개선됨과 동시에 국내업체와 미국 마이크론간의 시장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 마이크론의 엘피다 인수로 선도업체가 3개사로 재편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는 마이크론과 국내업체간의 시장주도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
 - 특히 삼성의 경쟁자이면서 반도체 주수요처인 애플이 자국업체인 마이크론/엘피다로의 몰량 증대 가능성이 염려되는 상황
 - (구조조정 심화 및 시장 재편 가능성 대두) 경기 위축과 더불어 일본 업체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시장 재편 가능성이 예상
 - 소니 등 일본 전자업체를 비롯해, 노키아, HP 등 대형업체의 실적 축소가 거시 경제 위축과 맞물려 대규모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한편,
 - 재무적으로 건실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기에 의한 M&A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미래 핵심 사업분야의 선점 가열) 산업 발전의 핵심 수단으로서 「H/W + S/W + 콘텐츠」가 결합한 플랫폼 구축, IT기반의 융합화 진전으로 미래 핵심 사업 선점 경쟁이 더욱 가열
 - IT 산업이 내부적으로는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H/W(하드웨어), S/W(소프트웨어), 콘텐츠가 결합된 사업으로 변모하면서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하고 업체간 생태계 구축으로 경쟁 초점이 변화
 - 외부적으로는 자동차 업종의 Smart Car, 조선업종의 Smart Ship과 같은 IT와 전통제품간의 융합추세에 맞춰 업체간의 시장 선점 경쟁이 더욱 가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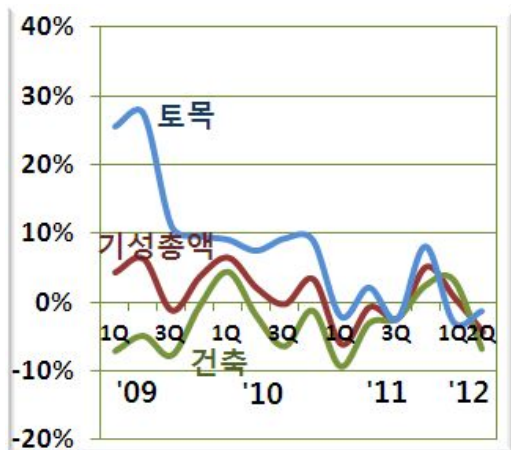
⑧ 건설업

하반기 민간·건축 부문 경기의 소폭 반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건설 경기 전반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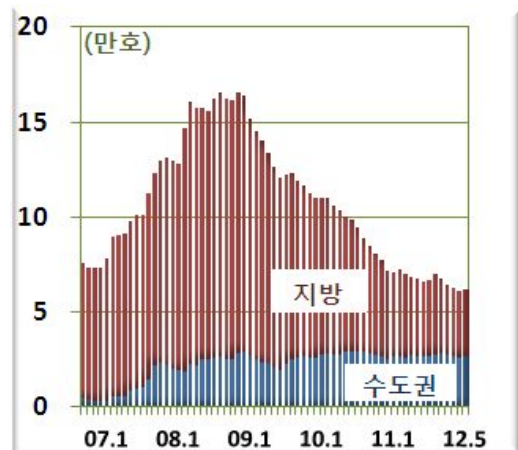
○ (2012년 상반기 경기 동향) 건축·토목 부문의 부진으로 건설 경기가 미약한 수준을 기록

- (건설기성) 건설경기 동향지표인 건설기성액¹¹⁾은 건축 부문 반등으로 작년 말과 올해초에 증가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4~5월중 다시 침체되는 모습
 - 건설기성액은 2011년 4/4분기에 전년동월대비 5.1%, 2012년 1/4분기 0.6%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4~5월에는 월평균 4.4%의 감소세로 전환
- (주택시장) 미분양 주택이 지방을 중심으로 감소하여 2006년 중반 수준
 - 전체 미분양 주택수는 2009년 3월 16만여호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2012년 5월 현재 약 6만 2,000여호로 축소
 - 지역별로는 2009년 이후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약 2만 6,000호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음

< 공종별 건설기성액 증감률 >



< 미분양주택수 >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국토해양부.

주: 기성액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12년 2/4분기는 4~5월 증가율 평균).

11) 건설기성액은 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여부와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통계청).

- (2012년 하반기 전망) 민간·건축 부문 경기의 소폭 반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건설 경기 전반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공공·토목 부진 지속) 대규모 국책 사업의 확대 추진이 어려워 보여 2012년 공공·토목 부문의 수주액은 2011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2012년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어 SOC예산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고 계속 사업 중심으로 배분되어 공공·토목 부문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하반기에도 지자체의 재정악화 등으로 공공·토목 부문의 수주 규모 자체는 전년동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민간·건축 소폭 개선) 하반기에는 장기 침체에 따른 기술적 반등, 공공기관 이전 등의 영향으로 민간·건축 부문 경기의 소폭 개선 가능성이 대두
 - 재개발 사업의 혼선이 정리되고 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¹²⁾
 -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존재하나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¹³⁾
 - 한편 2012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계획에 따른 청사 건립 공사 발주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비주거용 건축 수주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건설업 전망 (건설수주액) >

(단위 : 조 원)

| | | 2010 | 2011 | 2012(E) | |
|-----|----|-----------|-----------|--------------|-------------|
| | | | | 2011년 11월 전망 | 2012년 6월 전망 |
| 주체별 | 공공 | 29 (△43%) | 28 (△ 4%) | 28 (0%) | 29 (2%) |
| | 민간 | 55 (4%) | 60 (9%) | 62 (3%) | 63 (4%) |
| 공종별 | 토목 | 35 (△28%) | 33 (△ 7%) | 33 (0%) | 33 (0%) |
| | 건축 | 55 (△ 8%) | 60 (10%) | 63 (4%) | 63 (4%) |
| 전체 | | 90 (△17%) | 93 (4%) | 95 (2%) | 96 (3%) |

자료: 실적치는 통계청,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주체별 수주에서 국내 외국기관 및 민자 실적 제외하였으며,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12) 서울시 뉴타운 정책 수정 등 재개발 사업의 혼란이 정리되고, 강남의 재개발 사업은 소형 규모를 확대하여 진행.

13) 현대경제연구원, 「금융위기 이후 주택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현안과 과제, 2012.

- (주요 현안) 건설 업계의 자금난, 민간 주택 공급 체계의 고장,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무용론 대두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
 - (건설 업계의 자금난)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저축은행의 퇴출 및 건설 기업들의 자금난 등으로 건설 관련 금융서비스의 경직성이 예상
 - PF 대출 부실의 영향으로 저축은행이 퇴출되는 등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권의 PF 대출 회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주택 건설 중심의 중견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건설 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될 우려가 존재¹⁴⁾
 - (민간 주택 공급 체계의 고장) 주택 시장 장기침체로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위축이 지속되어 주택 건설 공급 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존재
 - 주택 건설 중심의 중견 건설사의 퇴출, 주택 시장 침체 지속, 주택 공급 계획 지연 등으로 민간 주택 공급 부문의 어려움 지속
 -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이 지속되고 있어 민간 주택 사업자들의 사업 기회가 감소하는 점도 우려
 -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무용론 대두) 하반기 새로운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감이 병존
 - 하반기 시장에서는 정부나 정치권이 침체된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
 - 그러나 최근 나타난 재개발 정책의 혼선, 5·10 부동산 대책의 효과 미흡 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감도 존재
 - 이에 따라 향후 새로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이 나오더라도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14)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시공능력 상위 100위권의 건설기업은 총 22개 기업이며,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회수가 예상되어 건설업 및 금융업 모두 막대한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구 분 | | 2010 | 2011 | | | | | 2012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연간 ^E | |
| 국 민 계 정 | 경제성장률 (%) | 6.3 | 4.2 | 3.5 | 3.6 | 3.3 | 3.6 | 2.8 | 3.5 | |
| | 민간소비 (%) | 4.4 | 2.9 | 3.0 | 2.1 | 1.1 | 2.3 | 1.6 | 2.5 | |
| | 건설투자 (%) | -3.7 | -11.0 | -4.2 | -4.0 | -2.1 | -5.0 | 1.5 | 2.1 | |
| | 설비투자 (%) | 25.7 | 10.3 | 7.7 | 1.2 | -3.3 | 3.7 | 8.6 | 6.3 | |
| 대 외 거 래 | 경상수지(억 \$) | 294 | 26 | 55 | 69 | 115 | 265 | 26 | 130 | |
| | 통 관 기 준 | 무역수지(억 \$) | 412 | 70 | 83 | 63 | 92 | 308 | 17 | 196 |
| | | 수출(억 \$) | 4,664 | 1,310 | 1,426 | 1,413 | 1,404 | 5,552 | 1,349 | 5,799 |
| | | 증감률 (%) | (28.3) | (29.6) | (18.6) | (21.4) | (9.0) | (19.0) | (3.0) | (4.5) |
| | | 수입(억 \$) | 4,252 | 1,239 | 1,343 | 1,349 | 1,313 | 5,244 | 1,333 | 5,603 |
| 증감률 (%) | (31.6) | (26.2) | (27.1) | (27.6) | (13.4) | (23.3) | (7.5) | (6.9) | |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 | 3.0 | 3.8 | 4.0 | 4.3 | 4.0 | 4.0 | 3.0 | 2.9 | |
| 실업률 (%) | | 3.7 | 4.2 | 3.4 | 3.1 | 2.9 | 3.4 | 3.8 | 3.3 | |
| 국고채수익률 (3년, 평균, %) | | 3.7 | 3.8 | 3.7 | 3.6 | 3.4 | 3.6 | 3.5 | 3.6 | |
| 원/달러 환율 (평균, 원) | | 1,156 | 1,120 | 1,083 | 1,085 | 1,144 | 1,108 | 1,131 | 1,125 | |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



 **현대경제연구원**